## 하루를 시작하며

# 반성문

**강 문 신**
시인

농협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여름, 조합장님이 "강 서기 마씀, 내일 광복절인디, 태극기가 허러수다. 서귀포 강 ᄒᆞ나 사옵서" 하시는 것이었다. 버스 타고 서귀포로 갔다. 삼일빌딩 아세아 마크사에서 태극기를 사들고, 서둘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하사관학교 동기생을 만난 것이다. 하도 반가워 그냥 보내진 못하고, 막걸리 딱 한잔씩만 하기로 하고 식당에 간 것이다. 제대 후, 결혼이며 살아갈 얘기 등을 안주삼아, 한병 두병 세병 네병… 마시게 된 것이다.

"우리말이야, 인간재생창이라는 그 하사관 학교에서 말이야, 거기서 사람 된 거라구. 시베리아 눈보라 속, 얼음장을 깨고 저수지로 뛰어들 땐 말이야, 난 꼭 죽는 줄 알았어,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배고파 허덕이면서도 말이야, 깡으로 그 깡다구 하나로 버틴 거란 말이야. X~도, 세상도 말이야, 다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그 친구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맞장구도 치면서, 아~헥까닥 한 것이니… 2차 3차에 이어 거침없이, 백만불싸롱으로 들어간 것이다. 한참 마시는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그 친구와 웨이터가 다투고 있었다. 만류하였으나, 되려 큰소리치며 대드는 것이었으니 "건방진 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한 주먹하고, 꼬꾸라진 걸 실내장식 분수대에 쳐 박은 것이다. 왱~ 사이렌 소리를 끝으로 필림이 끊긴 것. 이튿 날, 눈을 떠보니 서귀포경찰서 유치장, 형님과 조합장님과 고향선배인 홍명표 당시 제주신문 지국장님이 와 계셨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형님이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며칠 만에 풀려났다.

신혼 셋방에 들어와 바로 사표를 아내 편에 부쳤다.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직장의 사표를 들고 가는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울고불고 했지만, 어찌할 것인가, 그냥 방에 쳐 박혀 잘 밖에.

그러던 며칠 후, 조합장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조합장님은 상이군경임) 이 더위에 언덕길을 걸어오신 것이다. "강서기가 그만두는 것은 당연허우다. 허나, 갈 길이 구만리우다. 근무시간에 술 먹언 행패부리단, 잘렸다고 소문나봅서 그건... 안 됩니다. 근무허당 다들 잊을 만 헐 때, 그만두어도 그때, 그만두어야 헙니다. 아무 소리 말앙, 내일부터 출근 헙서." 어쩌랴, 체면불구하고, 근무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성산포농협에서 신용부장, 신산 분소장을 지내다가, 1979년 1월 1일 그만두었다. 다들 잊어버릴 만 헌 때, 내 인생 최대의 고비를, 조합장님의 깊은 배려로 무사히 살아넘은 것이다. 말단 직원에게도 늘 경어를 쓰시던, 하효농협 현학상 조합장님… 내가 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룬 게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분 그 배려 덕이다. 만약 그 고비, 그 사회 첫 관문에서 꺾였다면, 과연 그 젊음 어디로 흘렀을까? 아찔한 것이다. 그런 내가, 그동안 그분을 한번 찾아뵈온 적이 있었는가에 이르러,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세월에 핑계가 많아, 70이 넘도록 도무자 인간 도리를 못한 것이니, 죄스럽고 죄스러운 것이다. 부디 건강하시고… 조합장님, 조합장님.

## 사설

# 지하수 보전·관리,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제주지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거의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하수를 '도민의 생명수'라고 달리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주지하수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고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서부지역 등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5월초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 제주도 면적의 약 8.7%인 지하수 과대개발구역(160㎢)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 고지대 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하류지역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지하수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에 따르면 '해수침투우려지역'과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서부지역은 평년 강수량(1144㎜)이 제주 평균 강수량보다 1000㎜ 정도 적은데 8~10월 파종하는 작물이 많아 해수침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고산~무릉(2.2㎢)'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중산간 고지대 일부 지역은 오염징후가 나타나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471.4㎢)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에서 수자원 확보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용천수도 고갈되고 있잖습니까. 특히 제주는 섬지역이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학비료와 축산폐수 등에 의한 오염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단적으로 중산간 일부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내 양돈시설이 가장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질산성질소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자원 보전을 위해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지하수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중산간 지역에 산재한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열린마당

# "어린이날, 미세먼지 마스크 받아 가세요"

**김 도 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이양하 선생의 수필 '신록예찬'에 나온 문구다.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꽃이 만발하고 산록이 푸르러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매일 같이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뒤섞인 뿌연 하늘을 바라보면 그리운 풍경이 돼 버렸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아침이면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상황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요즘 부득이하게 외출을 피할 수 없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이 호흡기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나 눈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우 더욱 더 치명적일 것이다. 어린이날 받은 두둑한 용돈으로 평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가 좁다하고 뛰어다니고,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각종 지역 축제장이나 야외로 나들이를 가곤 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장 내 다양한 안전문화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우선 안전문화홍보부스를 방문하고 미세먼지마스크 등을 받아 착용한 후 어린이날 행사를 즐긴다면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안전이 제일이라는 의식을 직접 실천해 서귀포시민 모두가 '안전 서귀포시'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지하철 수준 정시성·편리성 확보해야"

### 원지사 대중교통 만족도 강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는 지하철 수준의 편리성, 정시성, 연결성의 확보"라고 강조.

원 지사는 3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편리성뿐만 아니라 정시성 등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가 버스 운송수익, 운전자 처우 개선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주문.

원 지사는 또 "공공성 강화가 준공영제 목적인만큼 도민들의 편리가 만족도와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표성준기자

### 세무서, 시장서 소통의 기회

○…제주세무서가 지난달 29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

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

제주세무서는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소중한 의견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조상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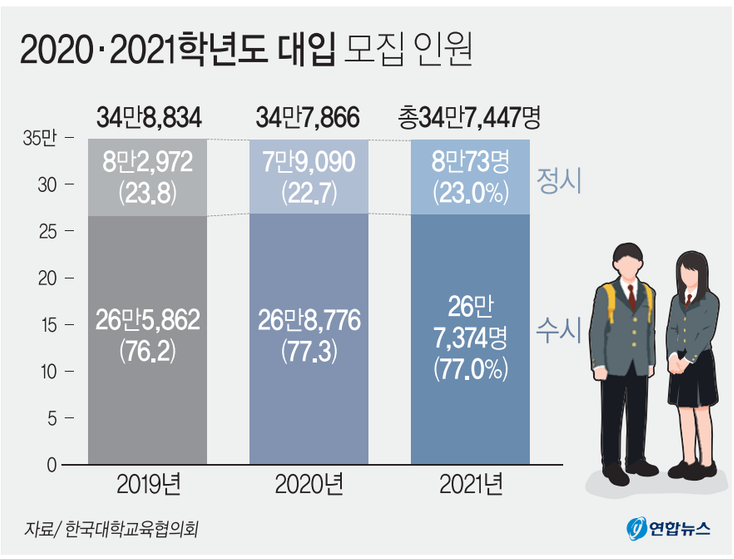
### "소년체전 좋은 성적 나올까"

○…제주도체육회가 5월 25~28일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출전과 관련, 30일 도체육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수단 633명(임원 164·선수 469)을 파견한다고 발표.

다만 효자종목인 축구와 럭비 등의 경기규칙 변경을 비롯한 지난해 축구 남녀 초등부 동반우승 등 최근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며 부담감을 표출.

도체육회 관계자는 "2일 대진추첨 결과에 따라 메달목표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선회. 백금탁기자

## 그래픽 뉴스





## 부 고

**이길형(제주공항 경찰대장)** 아버지 **전주이공 여옥(향년 89세)**께서 2019년 4월 30일 07시 2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월평동 선영

아 들 이길형 며느리 문영희
운형 옥경미
딸 이순자 사 위 김주식
경자
순열 조규태
손 자 이승준 외손자 오항근
손 녀 이혜연

※ 연락처 : 이길형 010-9431-9944
이운형 010-8833-6131
부민장례식장 742-5000

## 부 고

**여관웅(자영업, 前 우도라이온스클럽 회장)** 어머니 **김해김씨 옥란(향년 88세)**께서 2019년 4월 30일 08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8시
▶발인장소: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여관웅 며느리 원미경
관수 윤채원
딸(故)여숙자 사 위 고복동
숙희 김광국
유지 한석재
숙렬 허원광
숙선 박진식

※ 연락처 : 여관웅 010-2697-0635
여관수 010-2401-0734
김광국 010-3691-5259
박진식 010-3693-1204
원미경 010-2686-0635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 783-6511

## 부 고

**김영석(목조건축), 김병엽(제주대학교 교수), 김석준(前 오라동연합청년회장, 지엠씨앤씨 대표)** 아버지 **훈장 김해김공 만옥(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4월 30일 오전 7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제주시 해안동 선영가족공원묘지

미망인 박복순
아 들 김영석 며느리 최은경
김병엽 김미견
김석준 양희선
손 자 김승범 손 녀 김하람
김형건 김민경
김희건 김유담
김휘담 김채담
딸(故)김명수 사 위 김민석
김선희 김덕윤
김선자 김후성
외손자 김행준 외손녀 김정연
김경진 김주연
김평진 김민지
김민우 김연지
김보민

※ 연락처 : 김영석 010-4408-7188
김병엽 010-3696-4277
김석준 010-3694-2323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할머니 **김해김씨 보명(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5월 1일

장 손 고훈우 며느리 염명옥
딸 고은숙 사 위 이종식
고장효 이충희
고장희 안충호
고신효 김태엽
고미효 김경석

##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828
사기
• 피 고 인 이 승 화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30

판사 박 준 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독립적인 호텔식 분향실 및 접객실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대중교통 270번, 793-1번 이용가능
<애월읍 순환버스 .일반간선버스 운행중>
노형에서 10분 거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노형방향 1.5km지점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도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